

I. 상담실적

- 상담기간: 2023. 4. 6.(목) 06:00 ~ 23:00
- 상담건수¹⁾: 1,042건

II. 주요의견 내용

○ 방송 호평(6명)

-프로그램명 : 「아침마당」 ‘목요특강’

-방송일시 : 2023. 4. 6.(목) 1TV (08:25-09:30)

잠꼬대 등 수면장애증상이 심해 고생 중이다. 이날 1교시에 정기영 신경과 교수가 잠꼬대를 주제로 유익한 정보를 제공해주어 도움이 됐다. 또한 전상원 정신건강의학과 교수가 진행한 2교시 수업도 조울증을 다뤄 우울증을 앓는 시청자들에게 도움이 됐다. 목요일마다 뜻 소리 나는 전문가 선생님들 덕분에 본인도 똑똑해지는 것 같아 즐겁다.

○ 방송 제언(2명)

-프로그램명 : 「최경영의 최강시사」

-방송일시 : 1R (월-금) (07:20-08:57)

KBS 1라디오의 시사 프로그램들을 자주 청취한다. 그런데 대체적으로 공정하지 않아 청취자 입장에서 듣기 불편할 때가 많다. 해당 방송도 진행자의 성향이 강하고 섭외되는 출연자들도 특정 정치 성향이 강해, 공영방송으로서 보편적인 여론을 대변하지 못하는 것 같다. 좋은 소리만 듣지 말고 쓴 소리도 받아들여주기 바란다.

III. 청원현황

- 신규청원
 - 3건.
- 이슈청원 및 특이사항
 - 없음.

※ 참고: KBS홈페이지->시청자권익센터->시청자청원(<http://petitions.kbs.co.kr>)

1) 프로그램 별 인터넷 의견 건수는 집계에서 제외

IV. 일일 상담내용

1. 상담실적 : 총 1,042건

○ 형태별 분류

전화	인터넷	우편·FAX	방문	ARS ²⁾	계
468	101	-	-	473	1,042

○ 채널별 분류

1TV	2TV	라디오	DMB	인터넷	非채널	계
435	359	20	-	-	228	1,042

○ 내용별 분류

의견제시	단순문의	기타	계
190	852	-	1,042

○ 분야별 분류

방송	기술	경영	기타	계
771	1	71	199	1,042

시청자 의견	문 의
<p>【편 성】</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연중 플러스」 - 후속 방송 요청 <p>【시사·교양】</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생로병사의 비밀」 - 방송 호평 ○ 「아침마당」 - 방송 호평 ○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 방송 제언 <p>【연예·오락】</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개는 훌륭하다」 - 출연자 제언 <p>【드라마】</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일일드라마 「비밀의 여자」 - 극본 제언 <p>【라디오】</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최경영의 최강시사」 - 방송 제언 	<p>【방 송】</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TV 생생정보」 - 「중화요리 뷔페」 연락처 문의 60건 ○ 「6시 내고향」 - 「눈개승마」 연락처 문의 42건 ○ 「일일드라마 비밀의 여자」 - 「극본 불만」 23건 ○ 「아침마당」 - 「출연자」 연락처 문의 19건 ○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 「출연자」 연락처 문의 14건 <p>【기 술】</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주파수」 문의 1건 <p>【경 영】</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홈페이지」 문의 30건 ○ 「프로그램 구입」 문의 17건 ○ 「전화교환」 문의 9건 ○ 「사업 및 행사」 문의 8건 ○ 「수신료」 문의 2건 외 5건 <p>【기 타】</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한전 문의사항 포함 199건

2) ARS 항목 상세내용: 제보, 홈페이지문의, 프로그램 구매문의, 출연자 및 출연업체 전화번호 안내

2. 프로그램별 의견

의견	세부내용
[편 성]	
<p>후속 방송 요청</p>	<p>○ 「연중 플러스」</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020. 7. 3.~2023. 3. 16. (목) 2TV 방송. (총 124부작) - 연예계 소식을 전해주던 프로그램인데, 지난 3월에 종료되어 너무 아쉽다. 현재 KBS에 연예계 소식을 전해주는 프로그램이 없다. 후속 방송을 제작하거나, 「연중 플러스」를 대체할 만한 다른 프로그램을 제작해주기 바란다. <p style="text-align: right;">※의견제시자 : 익명</p>
[시사·교양]	
<p>방송 호평</p>	<p>○ 「생로병사의 비밀」 ‘한번 굳어지면 안 돌아온다 - 간경화’(3명)</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023. 4. 5.(수) 1TV (22:00-22:50) - 평소 지인들에게 해당 방송을 시청하라고 권하는 문자를 보낼 정도로 오랜 애청자이다. 이날 방송에서 몸에서 가장 큰 장기이며 중요한 역할을 하는 간을 다뤄주어 유익하게 잘 시청했다. 유익한 방송을 제작해주는 KBS에게 감사 인사를 전한다. <p style="text-align: right;">※의견제시자 : 익명 외</p>
<p>방송 호평</p>	<p>○ 「아침마당」 ‘목요특강’(6명)</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023. 4. 6.(목) 1TV (08:25-09:30) - 잠꼬대 등 수면장애증상이 심해 고생 중이다. 이날 1교시에 정기영 신경과 교수가 잠꼬대를 주제로 유익한 정보를 제공해주어 도움이 됐다. 또한 전상원 정신건강의학과 교수가 진행한 2교시 수업도 조울증을 다뤄 우울증을 앓는 시청자들에게 도움이 됐다. 목요일마다 푹 소리 나는 전문가 선생님들 덕분에 본인도 푹푹해지는 것 같아 즐겁다. <p style="text-align: right;">※의견제시자 : 익명 외</p>

의견	세부내용
방송 제언	<p>○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몸과 마음 동시에 살린다, 다 함께 춤을’</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023. 4. 6.(목) 1TV (10:00-11:00) - 춤을 주제로 한 방송이라 재미있게 시청했다. 줌바 댄스 전문가가 출연해 시청자들에게 춤을 가르쳐주어 좋았다. 다만 댄스 전문가를 집중적으로 화면에 잡아서 시청자들이 따라 출 수 있도록 해야 하는데, 장난스럽게 춤을 추고 있는 진행자들 위주로 보여준 점이 아쉬웠다. <p style="text-align: right;">※의견제시자 : 익명</p>
[연예 · 오락]	
출연자 제언	<p>○ 「개는 훌륭하다」</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TV (월) (23:00-24:35) - 강형욱 훈련사의 거칠고 강압적인 훈련방식이 보기 불편할 때가 많다. 해당 방송에 출연하는 개들이 대부분 공격성이 강한 문제견이긴 하나, 보호자가 보는 앞에서 목줄을 잡아당기는 등의 행동이 좋아 보이진 않는다. 같은 훈련을 시키더라도 부드러운 교육방식을 택하는 훈련사도 많다. 지나친 훈육은 자제해 주기 바란다. <p style="text-align: right;">※의견제시자 : 익명</p>
[드라마]	
극본 제언	<p>○ 일일드라마 「비밀의 여자」 (40명)</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023. 4. 5.(수) 2TV (19:50-20:30) - 주애라(이채영 분)가 남유진(한기웅 분)조차 속인 채 정겨울(신고은 분)의 아기를 납치한 내용이 이어지고 있다. 요즘 같이 힘든 시기에 가진 것 없는 정겨울이 친구의 악행으로 시력도 잃고, 아기까지 빼앗기는 설정이 보기 불편하다. 약자가 끝없이 고통 받는 상황을 지켜보는 게 답답하고 스트레스 쌓인다. <p style="text-align: right;">※의견제시자 : 익명 외</p>

의견	세부내용
[라디오]	
방송 제언	<p>○ 「최경영의 최강시사」 (2명)</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R (월-금) (07:20-08:57) - KBS 1라디오의 시사 프로그램들을 자주 청취한다. 그런데 대체적으로 공정하지 않아 청취자 입장에서 듣기 불편할 때가 많다. 해당 방송도 진행자의 성향이 강하고 섭외되는 출연자들도 특정 정치 성향이 강해, 공영방송으로서 보편적인 여론을 대변하지 못하는 것 같다. 좋은 소리만 듣지 말고 쓴 소리도 받아들여주기 바란다. <p style="text-align: right;">※의견제시자 : 익명 외</p>